



유럽 증시, 긴축 여파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약세

유럽 증시 리뷰

19 일(월) 미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유럽증시는 ECB 통화정책 이후 7 월에도 긴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중국 경제성장을 하향조정, 천연가스 가격 급등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급락(DAX -1.0%, FTSE 100 -0.7%, CAC 40 -1.0%, STOXX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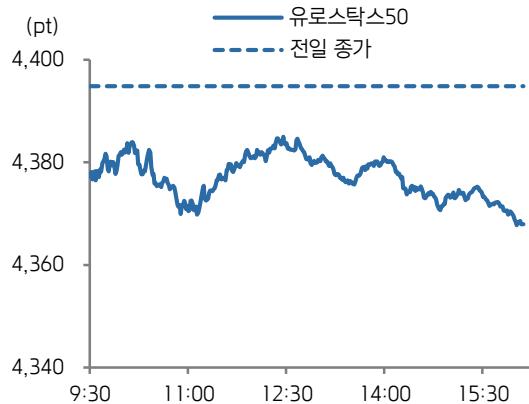
지난 15 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에서 4.00%로 0.25%p 인상 단행,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올해 5.4%, 내년 3.0%, 2025년 2.2%로 상향 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우리는 잠시 멈추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며 "7 월에도 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언급. 일각에서는 ECB 가 9 월에도 금리를 인상하며 과하게 통화 긴축을 할 위험이 있으며 저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9 일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담 진행하며 정찰풍선 갈등 이후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비롯해, 북한 핵 프로그램 억제, 기후 변화 대응 등에 있어 미중 양국이 협력할 가능성을 시사.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모두 관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언급. 그러나 순방의 핵심 목표였던 중국과의 군사 소통 채널 복원에는 실패. 또한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이 "신냉전을 원하지 않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충돌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하며 신중하게 접근.

골드만삭스는 JP 모건, UBS, BofA 에 이어 올해 중국 GDP 성장을 전망을 기존 6%에서 5.4%로 하향. 중국의 감소하는 인구, 높아지는 부채 수준,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동산 투기 억제 명령 등을 언급하며 "부양 패키지가 이전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 또한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미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의 추가 약세가 예상된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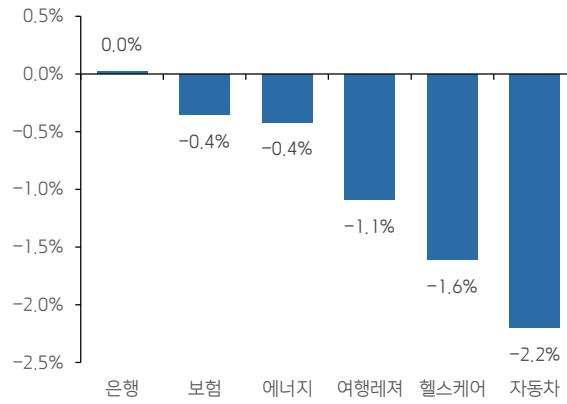
유럽 해운매체는 지난주 동북아시아에서 거래된 LNG 8 월물 평균 가격이 전주 대비 약 50% 올랐다고 보도, 지난 3 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가장 큰 원인은 EU 에 전체 수요량의 24% 이상을 공급, 러시아를 대체해 최대 천연가스 공급자인 노르웨이의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공급 차질로 지적.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코는 이달 21 일에 재가동 예정이었던 가스 처리 공장 한 곳의 가동 중단이 다음 달 15 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힘.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09.50	-0.62%	USD/KRW	1,281.86	+0.71%
코스피 200	343.13	-0.59%	달러 지수	102.52	+0.27%
코스닥	888.61	+0.07%	EUR/USD	1.09	+0.05%
코스닥 150	1,366.40	+0.02%	USD/CNH	7.16	+0%
S&P500	4,409.59	-0.37%	USD/JPY	141.89	-0.06%
NASDAQ	13,689.57	-0.68%	채권시장		
다우	34,299.12	-0.32%	국고채 3년	3.580	-0.8bp
VIX	14.19	+4.8%	국고채 10년	3.635	-2.3bp
러셀 2000	1,875.47	-0.73%	미국 국채 2년	4.714	+0bp
필라. 반도체	3,673.14	-0.94%	미국 국채 10년	3.761	+0bp
다우 운송	14,792.86	-0.51%	미국 국채 30년	3.852	+0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62.38	-0.74%	WTI	71.29	-0.68%
MSCI 전세계 지수	682.92	-0.29%	브렌트유	76.09	-0.68%
MSCI DM 지수	2,955.12	-0.24%	금	1963.9	-0.37%
MSCI EM 지수	1,023.42	-0.64%	은	24.05	-0.32%
MSCI 한국 ETF	66.48	-0.84%	구리	386.35	-0.6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4%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0.4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중 회담이 반도체, 방산 등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2.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의 LPR 금리인하 폭
3. 중국의 추가 부양책 시행 여부가 국내 산업재, 소재 업종 주가와 수급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코스피, S&P500, 나스닥 등 주요국 증시는 5주 이상 연속으로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상승 추세에 놓여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중간증간 숨고르기 과정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들도 등장하고 있는 모습.

일례로,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개인투자자들의 심리지표인 Bull-Bear Spread("+"면 낙관론 우위, "- 면 비관론 우위)는 6 월 15 일 기준 +22.5bp 로 '21 년 11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올해 Bull-Bear Spread 평균값은 -10bp 였던 만큼 한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는 비관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으나, 6 월 들어서는 낙관론으로 급격히 쏠리는 등 5 월 CPI, 6 월 FOMC 를 소화하면서도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술적 차트를 비롯하여 주가적인 측면에서 한국이나 미국 증시 모두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 하지만 Bull-Bear Spread 포함 시장 심리지표(+CNN Fear & Greed index)들이 단기적으로는 주가 과열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현물시장에서 롱 포지션으로 베팅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있음.

또 선물시장에서도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 나스닥 100 선물에 대한 투기적인 포지션은 "4 월말 +0.5 만 계약 → 5 월말 +0.8 만 계약 → 6 월 13 일 +1.5 만 계약"으로 AI, 빅테크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상황. 반면 S&P500 선물에 대한 투기적인 포지션은 "4 월말 -36.3 만 계약 → 5 월말 -43.4 만 계약 → 6 월 13 일 -33.1 만 계약"으로 하락 쪽에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음.

이처럼 연준과 시장간의 괴리가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대표 주가지수들 간의 방향성 베팅이 엇갈리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이 출현 중. 이를 고려 시 주중 잇따라 예정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주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출현할 가능성을 재차 염두에 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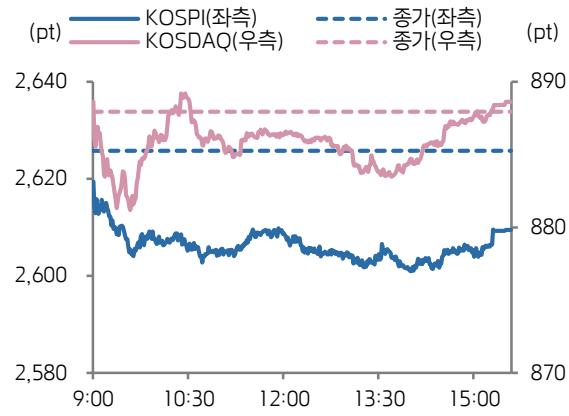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및 원/달러 환율 급등 속 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인해 LG 에너지솔루션(-4.6%), SK 하이닉스(-3.5%)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받으며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6%, 코스닥 +0.1%).

금일에도 차익실현 압력은 있겠으나, 중국 쪽 이슈에 주목하면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연출함에 따라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

전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시징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미국은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짐. 최근 군사, 경제, 외교 등 여러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었던 미중 관계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증시 입장에서도 긍정적이긴 함. 다만, 여전히 이들은 대만 충돌, 경제 패권 등을 둘러싼 갈등 해소는 장기적인 사안인 만큼, 이번 회담이 완전한 미중 해빙모드 돌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지양할 필요.

장중에는 중국의 LPR 금리인하 여부(10bp 인하가 컨센), 추가 소비 촉진 정책 시행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이는 중국 이슈(미중 회담, 금리인하 여부 등)은 금일 국내 증시에서 방산, 기계, 철강, 화학 등 산업재, 소재와 같이 주력 업종 주가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게 됩니다.